

# 광주 기관장 인사청문회 범위 축소 목소리

### 타 시·도보다 청문회 대상 많고 제출 서류도 복잡 전문성·역량 검증 못하고 신상털기 집중... 후보들 기피

전문성, 리더십 등을 갖춘 적격자를 인선하는 취지로 민선 6기 광주시에 도입된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의 범위를 축소하고, 청문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많은데다 그 취지와는 달리 개인 신상 털이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능력, 역량 등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사청문 절차에서 부적격 의견이 나오는 경우 임명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산하 기관의 파행 운영 불가피, 지역 내 불필요한 논란 가중 등의 부작용도 일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본격적인 산하 기관장

공모에 나서고 있어 전문성과 역량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광주시의회와 협약을 통해 도입한 인사청문회 대상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 등 공기업 4곳에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여성재단, 광주전남연구원(전남도와 공동 개최) 등 출자·출연기관 5곳 등 모두 9곳이다. 반면 서울은 5개 공기업, 대구 4개 공기업 1개 출연기관(대구의료원), 인천 5개 공기업, 대전 4개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산, 울산 등은 인사청문회가 없으며, 인천은 의회 예규로 규정해왔지만 지금까지 개최 실적은 없다. 경기도(6), 강원(6), 전남(5), 경북(5), 제주(5) 등보다 많다. 그동안 광주시는 모두 12차례 인사청문회를 열어 8명을 임명하고, 2명 지명 철회, 2명 자진 사퇴했다. 업무 이해 및 전문성 부족과 함께 도덕성 시비, 정치적 편향 등의 지명 철회, 자진 사퇴 등의 이유였다. 인사청문을 위한 제출 서류도 지나치다. 인사청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직무수행계획서,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기타 시의회에서 요청한 관계 서류 등으로 규정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사생활이 지나치게 공개되면서 일부 역량 있는 인사들은 광주행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 적격자를 찾는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도시공사는 지난해 3차례 사장 공모에도 적격자를 찾지 못해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복지재단, 도시철도공사, 문화재단 등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규모가 작은 출연기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산하 기관장의 인선을 앞두고 적격한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도록 지역 내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옛 광주교도소 5·18사적지 훼손 최소화 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기본구성안 중간 보고회

광주시는 지난 17일 이용섭 시장 주재로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원에 건립할 예정인 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 콘텐트 기본구성(안)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교도소 부지 내 기존 시설 원형 보존과 1980년 이후 증·개축된 건물 리모델링, 철거할 시설물에 대해 5·18기념사업위원회 심의 결과와 사업추진협의회 현장방문 및 회의 결과 등 추진 과정을 소개하고 사업콘텐트 기본구성(안)을 설명했다. 사업콘텐트 기본구성(안)에 따르면, 콘텐트는 크게 3개의 테마로 ▲5·18사적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역사체험 배움 공간으로 조성 ▲

국제인권 도시와 교류할 수 있는 허브공간으로 조성 ▲ 도심 녹지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보고회 받고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옛 광주교도소 원형을 최대한 보존해 이곳이 역사의 장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리모델링 건물은 현재와 전통이 잘 어우러지고 무엇보다도 일차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해 광주가 지켜낸 민주 역사가 세계적인 인권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이 제안했으며, 조만간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2018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가 지난 16일 대전시 롯데시티호텔에서 이 의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의장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갈등의 시기에 정부집안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역사의 비극"이라며 "10·19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안을 제안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 의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서 이희호 여사 등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 DJ 서거 9주기 추도식...민주·평화당 인사 대거 몰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를 맞아 지난 18일 거행된 추도식에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총집결, '김대중 정신'을 기렸다. 문화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특히 추도식에는 마치 김 전 대통령의 '적통 경쟁'이라도 하듯 민주당과 평화당 인사들이 대거 몰렸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는 물론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기호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김해영·유승희·설훈 후보, 그리고 현역 의원들

과 당직자들이 자리했다. 평화당에서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김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박지현 의원, 천정배 의원,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 의원 등이 추도식장을 찾았다. 또한 평화당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과 한화갑 전 의원, 김대중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욱 전

실장, 김옥두 전 의원 등 동고동계 원로들도 빼곡히 자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화환을 보내 김 전 대통령의 넋을 기렸다. 또한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의 모습도 보였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9주기 행사'에 참석했다. 한편, 오는 29일 화순에서는 김대중기념센터 개관식 및 김대중 대화록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경영평가 꼴찌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후폭풍

### 노조 "이사장 퇴진" 1인 시위

최근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전국 '꼴찌'로 평가받은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본보(14일자 5면) 보도 이후 공단 내부에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19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공단 노동조합이 경영 책임자의 자질을 문제 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신광조 공단 이사장은 취임 이후 1년동안 공단의 업무는 뒤로 한 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시로 공직선거에 개입,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당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행정 감사관한을 갖고 있는 구의회에 출석,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않아 공단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신 이사장이 자신의 사적인 일에 직원들을 수시로 동원했으며,

이를 시정하고 공단업무에만 전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노조위원장에게 밤늦게 카카오톡을 통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까지 했으며 관련 증거물을 제시했다. 실제로 신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수시로 공단 직원들을 시켜 올리도록 지시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양계농장에서 계란을 줌으로써 계란을 2인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제가) 새벽에 쓴 글을 페이스북에 옮겨 게시해 줄 것을 4-5차례 부탁했으며, 동호회 회원이 운영하는 농장에 가서 직원들과 계란을 2차례 주워온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신 이사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노조측은 "이번 경영평가 '꼴찌'에 대해 무관심을 보여 할 공단 이사장이 도리어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 지난 17일부터 광산구청 앞에서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공개 모집

### 현 협력관 사의 표명

광주시가 개방형 직위인 인권평화협력관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19일 "임기 2년의 개방형 직위인 인권평화협력관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현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는 9월 10일 자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지·성별·연령 제한은 없지만, 지

방공무원법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임기는 2년이며 최대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고의 첨부물에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청 민원실 내 응시원서 접수장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에 이어 9월 18일 2차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 적격성 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개별 통보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노안수술 받으면

### 돋보기 없이

##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4point

J2 5point

J3 6point

J5 8point

J6 10point

7 12point

1652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810973

576214302

693749802

87811002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